

노년기 사회자본 수준에 따른 삶의 질 분석

: 혼인상태와 성별을 중심으로

서 지 원 (방송대 조교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자본이 노후의 삶의 질 증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자본이 삶의 질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혼인상태와 성별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의 인구학적 배경, 건강, 소득,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 등의 영역에 포함된 변수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3,909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남성 1,648명, 여성 2,261명). 먼저 전체 노인 집단에서 회귀분석이 가능한 혼인상태의 남성과 여성, 사별한 남성과 여성 등 각각 4개의 부분회귀분석 모델이 선정되었다. 회귀분석모델에는 건강, 경제생활, 가족관계 등에 걸친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주관적 수준에서 측정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독립변수에는 사회자본 변수인 국가의 노후보장제도(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모임,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자원봉사모임, 정당 및 시민단체) 참여변수를 포함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지역, 교육수준, 가계소득, 자가주택 소유여부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집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사회자본 변수의 효과를 보면 국가의 노후보장에 대한 신뢰 변수에서는 성차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사회적 네트워크 변수에서는 성차가 나타났다. 우선 남성과 여성 모두 국민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초노령연금제도 신뢰도는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사회적 네트워크 변수에서 혼인상태의 남녀노인은 모두 공통적으로 종교모임과 친목모임 참여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성의 경우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참여가, 여성의 경우 여가모임 참여가 각각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별한 집단의 경우 삶의 질에 미치는 사회자본 변수의 효과를 보면 국가의 노후보장제도 신뢰도 변수와 사회적 네트워크 변수에서 모두 성차가 드러났다. 사별한 남녀노인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뢰도가 공통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였으며, 여성 집단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신뢰도 변수 역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한편, 사회적 네트워크 변수의 효과를 보면, 사별한 남성노인의 경우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별한 여성노인의 경우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모임,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참여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혼인상태와 성별에 따른 사회자본의 삶의 질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 노년기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자본의 효과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고령화 정책의 방향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였다.